

NEWS LETTER

2018년 10월 22일 Vol. 324

2018년도 임금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0월 15일 병원 4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임금 · 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진호 의료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나순자 위원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권준성 동국대병원지부장 등 노 · 사측 교섭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7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간 총 7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지난 9월 28일 임금협약과 별도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자율적인 합의 전통을 마련하자는 열의에 힘입어 어려운 시기 양보를 통해 잘 마무리 지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노측은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65.04%의 찬성을 얻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노사 모두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낸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협약 과정에서 힘들었던 상황들은 화합과 치유로 잘 극복하길 바라며, 노사가 화합하고 소통하며 직원을 존중하는 병원을 만들어나가자.”고 전했다.



송광사 교구종회 스님 대상, 승가 검진 특화 프로그램 홍보 활동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0월 10일 승가검진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제21교구 본사 승보종찰 송광사 교구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송광사 교구 주요소임자 및 본말사 주지 스님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스님들의 건강한 수행생활과 질병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승가검진 특화 프로그램으로 스님들의 검진편의를 위한 승가지대방과 승가전용검진병실 운영 등의 특화된 공간 등을 소개해 스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에서 스님들이 병원 이용 시 입원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려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로 스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자원봉사자 야유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에서 ‘2018년 자원봉사자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을 위해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병원에 대한 긍지와 자원봉사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4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봉사자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야유회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다.”며 “병원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 내 풍진 유행 주의 당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최근 일본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풍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풍진은 비말 전파와 직접접촉을 통한 감염, 수직감염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발진 발생 7일 전부터 7일 후까지 전염될 수 있다. 주 증상으로 발열, 피로, 결막염 등 가벼운 임상 경과를 거치며 특징적으로는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 통증을 동반한다.

풍진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 여행 전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신을 2회 모두 접종 완료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가임 여성은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풍진(MMR) 예방 접종률이 높아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토리

82병동 홍주혜 수간호사님, 강수영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82병동 수간호사님과 강수영 간호사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해 이렇게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100일 갓 지난 아이를 입원시켜 검사하려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홍주혜 수간호사님께서 그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에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또 한 분은 강수영 간호사님, 아이 약 먹이는 것도 서툰 저에게 아이 검사부터 약 먹이는 방법, 검사 후 세심한 부분까지 섬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이 상태에 대해 문의를 해도 친절히 보호자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혹 저희 아이 때문에 퇴근이 늦어져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마주해 주시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을 직접 전달하지 못해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